

이탈리아 "모욕적 제안"…이란 대신 월드컵 참가론 일축

등록 2026.04.24 02:57:38 | 수정 2026.04.24 05:24:30



[제니카=AP/뉴시스]이탈리아, 3연속 월드컵 본선 좌절. 2026.03.31.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이란 대신 이탈리아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참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자, 이탈리아 정치권과 체육계가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3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로 활동하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파올로 잠폴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잔니 인판티노에게 이탈리아의 대체 참가를 제안했다.

잠폴리는 "이탈리아는 네 차례 우승 경험이 있는 팀이며,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월드컵이나 이탈리아 축구와 공식적 연관은 없는 인물이다.

이탈리아 내부 반응은 냉담했다. 루치아노 부온피글리오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CONI) 회장은 "첫째, 불가능하다. 둘째,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며 "월드컵 출전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안드레아 아보디 스포츠부 장관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며 "자격은 경기장에서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부 장관 잔카를로 조르제티 역시 "수치스러운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축구계 역시 비판적이다. 대표팀 감독 출신 잔니 데 비아시는 "설령 이란이 빠지더라도 같은 예선 조에서 다음 순위 팀이 참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탈리아가 이런 문제에서 트럼프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보지 않는

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는 최근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외부의 정치적 개입으로 출전 기회를 얻는 것은 국가 대표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국제축구계도 원칙을 강조했다. 스페인 축구협회 회장이자 국제선수협회(FIFPro) 전 회장인 다비드 아간소는 "월드컵 출전은 스포츠적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FIFA 역시 이란의 참가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최근 행사에서 "이란 대표팀은 반드시 참가해야 하며, 스포츠는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이란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포기하거나 출전 금지될 조짐은 없다. 이란 축구협회 역시 "대표팀은 대회를 준비 중이며 당국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규정상 공석이 발생할 경우 대체 팀 선정 권한은 FIFA에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같은 대륙 예선 체계 내 차순위 팀이 우선 고려된다. 이런 점에서 이탈리아가 대체 참가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월드컵은 6월 11일 개막하며, 이란은 4일 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질랜드를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